

에드바이오텍, 농산물 유통 플랫폼사 지분 인수로 사업다각화 모색

- ▶ 생산자-전통시장 상인 연결 플랫폼사 (주)위주 지분매입, 대주주 지위 획득
- ▶ 양사 간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이익 개선 기대

<2023-02-08> 면역항체 전문 바이오 기업 에드바이오텍(대표 정홍걸, 179530)은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놀장CONNECT'를 제공하는 (주)위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에드바이오텍은 지난 1월 16일 공시를 통해 약 13억 원을 (주)위주 구주매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주)위주는 기존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놀장CONNECT(이하 놀장)'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자와 상인을 직접 연결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다.

(주)위주 임주성 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규모는 약 120조 원에 이르지만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라 유통 비용률이 47.5%(2020년 기준)에 달해 소비자는 농수산물을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기존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유통 구조 혁신 플랫폼 구축했으며, 이를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드바이오텍은 면역항체 동물용 의약품 제조를 통해 축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위주의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플랫폼과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드바이오텍 정홍걸 대표는 "(주)위주 지분 인수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주)위주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이익 개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위주는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놀장'을 활용한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기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자 및 전통시장 판매자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는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는 지역요식업협회 및 지역슈퍼마켓조합까지 시스템 참여를 확대해 전국적인 온라인 식자재 마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